

どうなる・どうする日韓関係～NHKラジオ放送～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한일관계 ~NHK라디오방송~

NHK라디오 제1방송에서 2월28일(금)에 「나도 한마디! 저녁뉴스」의 『저녁 핫 토크』 코너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한일관계」가 방송되어, 해당 협회·재단의 코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가 NHK의 이데이시 해설 위원으로부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해당 협회의 최근 활동 및 한일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게재 하겠습니다.

출연자는 다음과 같음. (존칭 생략)

사회 : 이데이시 타다시 NHK해설위원(담당 분야: 한반도·미국사회 등)

출연자 : 코레나가 카즈오 (사)일한경제협회 · (재)일한산업협력재단 전무이사

이데이시 : 안녕하세요? 해설위원 이데이시입니다. 이번 주 이시간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한일관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전하고자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인 코레나가 카즈오씨입니다. 코레나가씨는 종합상사에 오래 근무하신 후, 2010년부터 한일양국의 경제 연계를 위한 일반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의 전무이사로 계십니다. 코레나가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코레나가 : 잘 부탁드립니다.

이데이시 : 우선, 지금의 한일관계를 코레나가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레나가 : 작년 2013년에는 양국에 새 정권이 생겨나고, 밝은 미래지향의 관계 부활을 기대 하였습니다만, 현상은 냉랭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데이시 : 사실은 코레나가씨는 어제 미얀마에서 막 돌아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한일 합동으로 미얀마에 가셨단 말씀이신건가요?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이데이시 : 그것은 어떠한 임무(미션)였습니까?

코레나가 :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원래 자원이 부족한 일한 양국이 협

력을 하여, 제3국에서 금속이나 에너지 등의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일, 또는 아시아 선진국으로서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는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사회 개발에 공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계, 산업계분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일경제인은 양국관계가 냉랭해진 현재 상황을 정치적인 움직임과는 분리해, 이런 시기 일 때 일수록 양국의 경제인과 미래지향으로 연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우선 첫째로 작년 1월에 양국경제인이 합동하여 인도네시아에 미션을 보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현재 한일양국산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의 개발수입 프로젝트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데이시 : 그래서 작년은 인도네시아 올해는 미얀마이군요?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물론이지만, 실은 양국의 해당기업이 현지의 조인트벤처에 젊은 사원을 파견하여, 한일양국 직원간의 교류를 여기에서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경영, 자원 확보 또는 파이낸스등과 같은, 이른바 살아있는 일을 현장에서 공부시킴으로서, 인재육성의 플랫폼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 왔습니다.

이데이시 : 이번엔 미얀마 이었던 것인데, 지금 미얀마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니 어떠셨습니까?

코레나가 : 실은 어제 막 돌아왔습니다만, 양국 합계로 약 50명의 사절단으로 구성되어, 현재 나라 전체의 재건과 정비가 급선무가 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양국이 연계하여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나라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의 단서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미얀마를 3회 방문 하였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호텔에서 한발 짝만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안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용 단지의 조성 또는 매우 부족한 전력의 문제, 우기시즌의 홍수대책이나 그 연장선상의 상하수도의 정비, 도로의 정체, 도시부의 슬럼화, 또한 구급구명 등.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라에서 골치가 아픈 것은 젊은 층과 중견층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도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한일양국이 인재육성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데이시 : 한일이 함께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이 군

요?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이데이시 :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일의 정치적 관계는 매우 냉랭한데, 경제라는 점에서는 그만큼의 악영향이 없다는 것인가요?

코레나가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양국의 무역액은 2012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한국에 있어 일본은 2위, 일본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3위라는 것이고,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투자도 2012에는 45억 달러로써, 이것은 투자국중의 1위입니다.

이데이시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가요?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98%라는 비약적인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 쌍방의 관광객 등 인적왕래는 556만명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양국이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공동 협력한 자원 확보의 안건이나 인프라 수출 안건이, 특히 2009년 이후에 더 많이 생겨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안건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LNG의 프로젝트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개발, 브라질의 희소금속의 개발안건등이 있습니다. 인프라로는 방글라데시나 터키에 개설할 수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설치 안건 또는 세계 각지를 대상으로 하는 물 인프라 안건 등 매우 폭넓고 다양하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데이시 : 한일이라고 하면, 바로 라이벌 관계로 인식했는데, 오히려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네요?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프로젝트가 2009년쯤부터 라고 말씀드린 배경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일 양국의 리먼 쇼크의 영향이 유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데이시 : 과연 그렇군요. 빨리 회복했었죠.

코레나가 : 그렇습니다. 빨리 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정권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하게 내놓은 것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욕을 늘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기업이 한일이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데이시 :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만, 지금 얼음장 같은 한일 관계, 특히 정치면의 관계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레나가씨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코레나가 : 저는 이럴 때일수록, 앞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일의 당사자끼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이시 : 2015년, 내년은 마침 한일 기조조약이 맺어지고, 국교정상화가 된 이후로 50년이 되는 해이지요.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어떠한 것이 향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코레나가 : 2018년 평창올림픽, 그리고 2020년의 동경 올림픽, 올림픽이 매우 단기간에 동아시아에서 개최가 되지요.

이데이시 : 2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는 것이네요.

코레나가 : 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시아 안에서 특히나 이 지역에서의 사람, 물건 그리고 돈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의 움직임을 매우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데이시 : 일한경제협회는 여러 가지 인적 교류의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지요?

코레나가 : 네. 역시 향후 50년을 담당할 사람은 젊은이들이라는 것이고, 특히 고교생, 대학생, 심지어 대학원생 등의 교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20회, 고교생 교류 캠프라는 행사를 진행 해왔습니다만은 이를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이데이시 : 꼭 부탁드립니다.

코레나가 : 이것은 사실, 한일 각국이 50명씩 총 100명의 고교생이 4박5일의 합숙을 하며, 예를 들면 한일의 관광의 추진, 건강식의 보급·판매를 해나가자 라든지, 실버층에 대한 출장개호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한단든지, 젊은이다운 그러나 현대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한 테마를 각기 정하여 사업화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어떤 때는 통역에 의존

하고 어떤 때에는 필담으로 논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내용은 젊은이다운 기발한 내용입니다. 저 자신이 이 캠프에 참가하여 사실 매회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합숙 첫날은 긴장하여 사실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날 전원이 부동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감상문을 제출해오는데요 「나는 캠프를 통해 평생의 친구를 얻었다. 한일양국간의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나 자신은 양국의 우호의 가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보내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우리 어른들을 넘어섰다고.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지 사실 매회 생각합니다.

이데이시 : 어른들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아이들은 더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네요.

코레나가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려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붙잡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그것이 잘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 잘 안되면 함께 고민을 하는 이러한 자세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데이시 :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한일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젊어져 갈 젊은 사람들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코레나가 : 정말 그렇군요.

이데이시 : 그렇다면, 장래를 너무 비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코레나가 :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한,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이데이시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의 코레나가 카즈오씨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한일관계, 특히 경제면에서의 교류, 그리고 인적교류에 대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코레나가씨,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레나가 : 대단히 감사합니다.